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3.(금) 10: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박세채	1. 1974년 준공된 구미대교는 2013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다가 최근 기능보강 사업으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교량 노후화로 대체교량 건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신설교량 건설 전 까지 구미대교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시 장 (도시건설국장)	P.2
	2.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는 1976년 3월 1차 허가, 1983년 3월 2차 허가,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현재까지 수차례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과 산림피해 원상복구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	P.5
	3. 봉곡천은 하폭 및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 차원에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비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	P.8

질문

1. 1974년 준공된 구미대교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다가 최근 기능보강 사업으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교량 노후화로 대체교량 건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신설교량 건설 전까지 구미대교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평소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미대교는

1974년 준공되어 낙동강을 횡단하는 주요 교량으로써,

일 평균 교통량이 6만대 정도이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제1종 대형시설물입니다.

○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준공된 지 48년 경과된 구미대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대체 교량 신설 및 기존 교량 개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연장 570m, 폭 22m의 대체교량 건설은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인 산자부 협의결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에 의거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연장 688m, 폭 20m의 구미대교 개체는
사업비가 1,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도로법) 개정 및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설교량 건설 전까지

구미대교의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교량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2.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는 1976년 3월 1차 허가, 1983년 3월 2차 허가,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현재까지 수차례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과 산림피해 원상복구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선기동 일원은 과거에 도시 외곽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어 정주 여건이 많이 향상되면서 도시경관 상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에 1976년 3월 이정익 외 3인이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 공급을 위하여 선산군으로부터 1차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후 1979년 12월 산지복구사업 착수 신청을 하였으나 관내 신시가지, 연료단지 조성 등 공사용 골재 확보를 위하여 복구를 보류 하였으며,
- 2차로 1983년 3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대림산업에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 공급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이후 1985년 3월 사업종료에 따른 복구요청을 같은 해 4월, 5월, 7월에 총 3번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1993년 5월 재차 복구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림산업 측에서는 선산군의 원상복구 보류 및 복구예치금 포기를 근거로 복구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1995년 제13회 제6차 본회의 시 구미시의회에서 복구 요청이 있어 복구예치금 6백만원으로 차폐용 식물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 최근 원상복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토석채취 완료 후 장기간 경과 되어 관련서류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당시 피허가자에게 복구시행을 촉구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 현재 사유지인 토석채취 토지의 복구공사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서류 부존재로 행정지시를 하기에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정상복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경관 회복을 위하여 녕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시 조치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며,
장기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에
집행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선기동 산20-1번지 원상복구는
산림 및 경관 회복,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단기적·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3. 봉곡천은 하폭 및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 차원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비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 봉곡천은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계능선인 송천령에서 발원하여 선주원남동 및 도량동을 관통하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유역 인구는 세대수 약 14,500세대, 인구 32,000여명으로, 구미시 도심지의 주요 하천 중 하나입니다.

○ 중간부에는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홍수시에는 하천 범람 및 내수침수로 인해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현재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본 사업내용은

봉곡천 축제 및 보축 5.4km,
교량 재설치 8개소,
배수시설물 재설치 11개소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66억(50%), 도비 50억(15%), 시비 116억(35%)를
포함한 332억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 봉곡천은

과거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

2018년 집중호우 시 범람 위기까지 갔으며,

실제 2012년 태풍 산바 때는

봉곡천과 구미천의 합류부 하류지점인 구미교 일원이
범람한 사례도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